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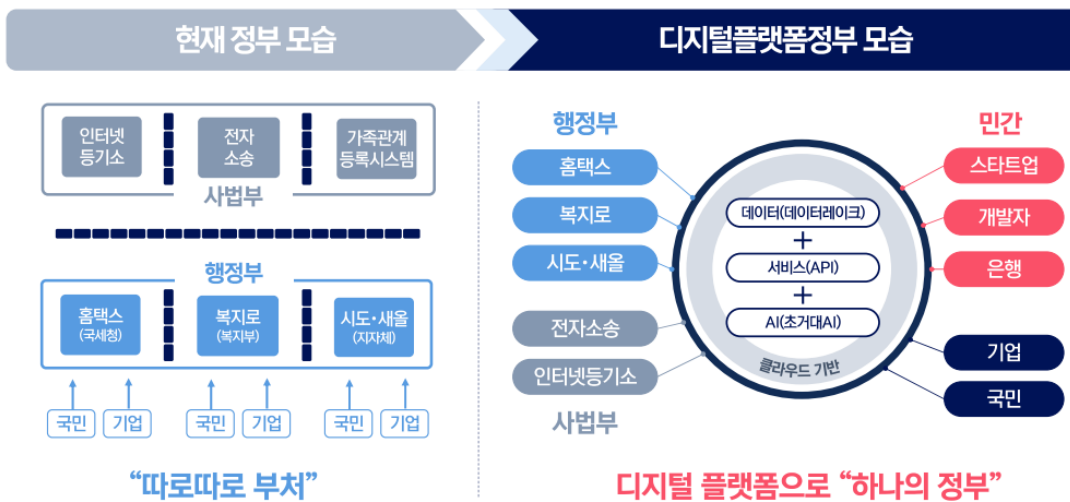
새 정부 ICT정책과 인공지능 신뢰성

글 | TTA 곽준호 책임연구원

이번 정부의 ICT 관련 대표 공약

새 정부에서는 ICT 대표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내세웠다. 이는 국정 과제로서 발표되었으며, 이어 지난 5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습



▲ 출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자료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주요 골자로는 공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 범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 및 활용,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국정 운영 과학화 등이다. 특히, 첫 2년간은 기획 및 도입 단계로서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진행하고, 4년까지는 구축 및 발전 단계, 5년까지는 완성 단계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고도화 및 해외 진출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사실,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정책에 대한 논의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21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23)'에서도 다양한 행정 부문에 걸쳐 추진 과제와 그 사례가 열거된 바 있으며,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정책 결정 및 수행 지원을 핵심 추진 과제로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능형 CCTV 기반 공공 안전 관리 및 범죄 예방, 출입국 심사, 보훈 심사, 인재 추천 및 인재 정보 관리 등 정부 및 공공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책 효과의 정밀 예측을 비롯하여 정책 수행 효율화 등을 통해 정책과 행정 최선단에서 국민과 정책 입안·수행자에게 많은 편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 과제로 발표된 110개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타 정책 및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당면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간 공공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이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케 할 법적·물리적 인프라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

인공지능의 신뢰성은 인공지능의 활용 및 적용 과정에서의 편향 및 차별 발생, 설명 가능 여부, 오작동 사례 등의 크고 작은 이슈가 생겨나면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대중에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신뢰성은 이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EC나 UNESCO는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칙·규제안과 권고안을 작년에 제시한 바 있으며, OECD, IEEE, ISO/IEC 등 국제기구와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는 신뢰성 논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뢰성은 다양한 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주로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 여부와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및 강건성,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대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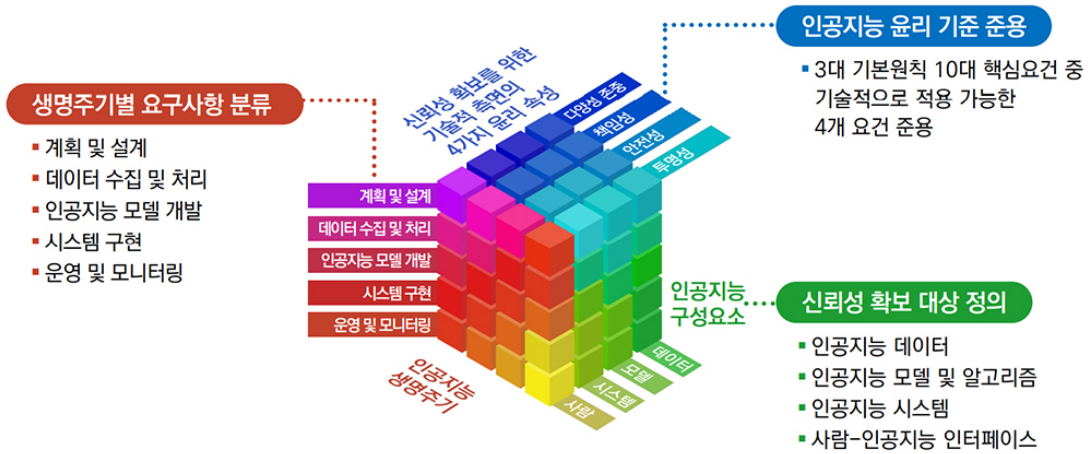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원칙

원칙	내용
인간 존엄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2년 2월 윤리 자율 점검표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신뢰성의 정의와 함께 실제 인공지능 구현 시 개발자·기획자 등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신뢰성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문헌 내용, 그리고 다수의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구현 단계에 따라 14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원칙 수준의 문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인공지능 신뢰성은 아직도 변동성이 있는 개념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표준화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 역시 다양하기에, 각 분야별로 특화된 안내서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이의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신뢰성 개념 및 프레임워크, 출처: TTA▲

핵심 논제와 향후 동향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엔진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과 정책이 국민과 사회에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민간 및 산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은 시사점이 크다.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긴밀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와 위력을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효과의 정밀 예측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입안자는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최종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와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차별이 걸러지지 않고 정책 입안과 수행 과정에서 반영되거나, 인공지능을 통해 증폭된다면 이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역시 신뢰성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활용 및 적용 과정에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가장 모범적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및 정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이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달라진 ICT정책과 해외 디지털 인프라 정책동향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수출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복안이다.

기술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AI·데이터·5G·6G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주도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확산에 대한 협력 필요성 공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최근 기술협력이 군사협력만큼 중요해졌다는 양 정상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 정상의 ICT 정책 관련 합의 내용>

-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 공급망 교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 발전 협력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출처: 제20대 대통령실▲

대한민국 新정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재도약 추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저성장 등의 위기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이를 통한 재도약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사항은 디지털 핵심기반, 신산업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제77)',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제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제77-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 추진, AI반도체 육성
- (공공, 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 (클라우드·SW 육성)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 우선 이용,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 대규모 R&D 추진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생태계 활성화,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정책 동향

미국은 '미국 혁신경쟁법(상원, '21.6)'과 '미국 경쟁법(하원, '22.2)'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첨단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혁신경쟁법의 세부법안인 '끝없는 프론티어법'에 따라 인공지능·머신러닝, 고성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재난대응기술, 첨단통신, 사이버보안, 로봇·자동화·첨단 제조, 바이오·의료, 첨단에너지, 첨단소재를 10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2년부터 5년간 총 290억 달러를 투자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쟁법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연구·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추진하며,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보안 분야 등의 연구지원 내용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비전 수립('21.3) – 인력(specialists), 인프라(infra), 비즈니스(business),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4개 영역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단일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데이터 인프라, 저전력 프로세서, 5G 통신, 고성능 컴퓨팅, 양자통신, 블록체인, 공공행정, 디지털 혁신허브 및 디지털 인력 양성 등 대규모 다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솔츠정부 출범 후 발표한 '연합정부 합의문 2021~2025'에서 디지털 인프라·핵심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 프랑스는 '프랑스 경제복구계획(France Relance)'을 통해 친환경, 디지털, 사회연대 등 3대 분야에 1천억 유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인 '국토 디지털 전환계획(Transformation Numerique de l'Etat et des Collectivites)'에서는 프랑스 산업 전반의 현대화·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표 2030 Digital Compass 주요 내용	
분야	추진내용
디지털 인력 (specialists)	디지털 교육 강화, ICT 전문가 확보
디지털 인프라 (infra)	기가비트 인터넷, 5G, 반도체, 엣지/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Business)	기업의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도입,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유니콘 기업 육성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전자의료, 디지털ID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1.3)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21호)▲

중국 정부는 중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인 '신인프라정책(新基建)'을 발표하며 7대 주요 분야*에 대한 신산업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는 '신인프라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 (정보통신인프라,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 제시한 바 있다.

표 중국 新 인프라 추진 내용

분야	추진내용
5G 기지국	-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서비스 - 기지국 설비 및 부품(칩, 케이블, 안테나, 서버 등)
빅데이터 센터	- 단말기 및 부품(정보처리기기, 칩, 작업시스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 설비(서버), ICT 솔루션
인공지능(AI)	- 반도체(AI 칩, 센서, 서버) - ICT 솔루션(기계학습, 딥러닝, 의미 인식, 컴퓨터 비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인터넷	- 플랫폼(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 설비
특고압 송전망	- 직류·교류 특고압 장비(GIS, 변압기, 리액터, 변류기 등) - 디자인 및 구축
충전소	- 충전소 소재·부품(변성수지, SMC 복합소재, 케이블 소재, 알루미늄합금 등)
고속철도·궤도교통	- 장비(철도, 고속철도)

자료 : KOTRA (2021.12)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21호)▲

표 중국 新인프라 확대 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요기술	
디지털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5G, IoT,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신기술 인프라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컴퓨팅파워 인프라	데이터센터, 스마트컴퓨팅센터
	융합인프라	신경제 인프라	스마트교통, 스마트에너지
		신사회 인프라	스마트교육, 스마트의료
	혁신인프라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5) 재구성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21호)▲

싱가포르는 '연구·혁신 및 기업 투자계획(RIE) 2025'을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디지털 경제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해외 주요국도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정책 지속 수립·추진 중이다.

분야	추진내용
제조, 무역 및 연결성 (Manufacturing, Trade and Connectivity)	MEMS, 첨단소재, 친환경제조 공급망 플랫폼, 항공/해상 자동화, 3D프린팅
건강과 잠재성 (Human Health and Potential)	공공보건 개선, 맞춤형의료, 학습능력 개선
도시개발, 지속성 (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	스마트시티, 건축 환경분야 혁신
스마트국가, 디지털 경제 (Smart Nation and Digital Economy)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양자, 신뢰기술, 5G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21호)▲

주요 국정기조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산이 강조되는 대한민국

새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또한 초격차·초연결 AI 혁신을 통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와 모빌리티, 6G 기술, 양자암호 정보통신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등을 주요 핵심 R&D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 과학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포함한 국가의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ICT강국으로 또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ICT 인프라(네트워크 등)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신산업 발굴·육성 지원과 AI·클라우드·블록체인·5G 등 디지털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전통산업인 1·2·3차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새로운 도메인 창출과 전 산업의 디지털화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새 정부가 ICT 정책을 통한 새바람을 일으키게 되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조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21호) 

ICT 사람들

병원과 더 가까이, 환자가 더 편하게!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와 만나다.

인터뷰 |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2019년,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다. 그 후 2020년 2월, 우리나라에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생활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고 3년간 마스크로 우리를 보호했으며 병원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발맞춰 (주)레몬헬스케어는 더 편한 방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신속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비대면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와 KCA가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Q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입니다. (주)레몬헬스케어에서 플랫폼 사업총괄(CSO)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분석, 사업 확대 및 신규 BM 발굴, 제휴사 확대 등 당사의 외부사업 영역 전반에 대한 총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주)레몬헬스케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가요?

병원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간편결제, 전자영수증 발급,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자동 전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가능한 레몬케어플랫폼을 병원 및 환자에게 제공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 외로 병원에서 거치는 모든 대면과 출력물 수령이 필요한 전 과정을 저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거죠.

의료진에게는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된 의료진용 앱 '레몬케어플러스'를 통해 환자 관리, 진료 및 처방, 수술 일정 조율, 협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몬케어플랫폼을 통해 의료시장 내 비대면 & 페이퍼리스 (Paperless)를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Q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기술은 어떤 게 있으세요?

국내 상급, 종합병원 대상 레몬케어플랫폼 확산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중소병원/의원 시장에 레몬케어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내 당사 주요 서비스를 연동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별도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소병원/의원의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고 환자들과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른 서비스 확대가 예상됩니다.

Q 그중 가장 좋은 성과를 얻거나 보람을 느낀 업무가 있을까요?

최근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국내 최초페이퍼리스 모바일스마트병원 플랫폼' 보급 및 확대(현재 계약기준)로 상급종합병원 73% 정도(45개 중 33개)의 점유율 확보해 비대면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서비스'앱 구축과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에 기여 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들의 수고와 열정에 대해 받은 상으로 생각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Q (주)레몬헬스케어에 입사하고 싶은 인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팁을 전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바일 환경에 대한 관심, 열정과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호기심이 많은 젊은 인재들이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증보다 JAVA, PHP 등 많이 사용하는 코딩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기술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심이 많으면 충분히 입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 사전 교육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스마트 헬스케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1998년부터 IT 관련으로 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02년, 일본계 기업에 취업해 6년간 전문적으로 IT 관련 기술을 배우다가 IT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는데 처음으로 의료 관련 비즈니스를 접했습니다.

그때 타업종보다 의료 환경이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느꼈고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Q**회사내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사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부분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저를 E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I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덜렁거리기도 합니다. 평소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약간 허당같은 면도 있습니다.

Q**소위 말하는 MZ세대, '요즘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을 말하자면?**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가르치기보다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라"라고 하지 "아이가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상사는 어른이고 젊은 친구가 아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Q 향후 목표 및 다짐은 어떻게 되세요?

요즘 헬스케어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원격진료, 약 배달 등 단편 서비스 하나로만으로도 수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료예약부터, 모바일 결제, 전자처방전, 실손보험 청구까지 A-Z종합 건강 관련 서비스를 실제 의료현장과 협업으로 연동되어 제공되고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기보다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각오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플랫폼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때까지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저의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Q 이번 인터뷰로 웹진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옛날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CT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2~3년에 한 번씩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다 보면 주위에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모르게 '상처받는 사람'이나 '조직'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는 여유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가족, 동료, 지인에게 안부 연락하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한결 맘의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저도 지천명이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웃음)

ZOOM IN - I

시로 금융의 자율주행을 꿈꾸다

(주)에이젠글로벌 대표 강정석



(주)에이젠글로벌

☑ 일반현황

- **전담기관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내역사업명** AI바우처 지원

☑ 기업현황

- **CEO** 강정석
-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설립 연월** 2016년 2월
- **홈페이지** <https://aizenglobal.com/>

☑ 핵심성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상의 금융 특화 머신러닝 자동화 솔루션 'ABACUS' 개발 및 공급을 통한 금융 AI 혁신(우리은행, 우리카드,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

데이터플랫폼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banking 서비스 '크레딧커넥트(CreditConnect)'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데이터이코노미 기업 대상 '크레딧커넥트' 적용을 통한 여신공급으로 금융 인프라 서비스 수출 성공

모두에게 이로운 '신용' 공급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DIGITAL BANKING

- Data
- E-Commerce
- Finance
-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에이젠글로벌 AI금융서비스

글로벌 금융회사 출신, SAP 빅데이터 엔진의 창업가, IBM 왓슨 출신의 AI전문가가 모여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인공지능 금융혁신을 일으킨 기업

싱가포르 통화청 선정 '책임감 있는 AI기업'	홍콩 Fintech Week 1위
싱가포르 Fintech Awards 글로벌 2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 수상

에이젠글로벌은 금융 특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 회사와 금융회사를 연결하여 쇼핑·모빌리티·교육·전자지갑·의료 등 데이터가 창출되는 영역에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신용(Credit)'을 활성화하는 'Banking-as-a-Service(BaaS)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비금융 데이터를 금융에서 활용 가능한 신용 정보로 변환하는 핵심 기술을 통해 이커머스, 모빌리티, 전기 배터리, 공유경제 등 산업 영역에 확장성 있는 금융으로 현재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산업 간의 데이터 융합과 AI를 통한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AI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에 신용 공급을 집중하는 에이젠글로벌은 이를 통해 AI 기반 여신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루고 '금융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플랫폼-핀테크-전통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로운 '신용' 공급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AI를 통한 금융 디지털 전환을 이루다



The graphic features a central circular interface with the text "Credit Connect" and "Powered by ABACUS". Surrounding this center are various icons representing financial and digital concepts: a padlock, a cloud with a download arrow, a shopping cart, a house with a dollar sign, a bar chart, a house with a pound sign, a bank building, and a person with a gear.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gradient with a subtle grid pattern.

AI Technology Platform for Digital Financial Services

AI ZEN **CreditConnect**
Powered by ABACUS

에이젠글로벌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금융AI 솔루션 '아바커스'. 이는 금융 빅데이터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량데이터를 고속처리, AI 모델링, AI 모델 배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모든 기능을 API로 구성한 아바커스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은행의 심사, 디지털전략, 카드사의 FDS, 보험의 클레임 속성 분류 등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Core Technology for AI Banking Services

AI ZEN **CreditConnect**
Powered by **ABACUS**

두 번째는 '아바쿠스' 기반의 AI banking 서비스인 '크레딧 커넥트'이다. 크레딧 커넥트는 비금융 회사 고객에게 '신용'을 공급하기 위해 Credit Cycle 전체 프로세스를 AI 의사결정을 통해 자동화한 banking 서비스로, 국내 최대 45개 쇼핑몰의 이커머스 셀러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및 베트남 이커머스, 의학유통플랫폼 등에 베트남 현지 은행과 함께 금융서비스 제공하며 데이터플랫폼과 금융기관을 연결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2020년 12월 베트남에 첫 진출한 후 8개월 만에 100여 개의 데이터 이코노미 플랫폼 파트너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잠재 파트너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해외 수상실적 등 금융영역에서 독보적인 AI 기술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함을 기반으로 한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데이터 이코노미 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에이젠글로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AI바우처지원사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AI 서비스 적용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수요기업 8개사에 AI 솔루션 공급 및 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커머스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 전용 자산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이커머스 쇼핑몰마다 다른 정산 주기와 판매 조건들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채권 및 상품에 대한 정교한 자산 평가 모델 구축하여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이바지했다.

에이젠글로벌은 과거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AI 솔루션 도입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와 ICT기금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 및 상품에 대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확장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다.

AI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금융 모델' 수출

에이젠글로벌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AI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비금융 산업에 banking 서비스를 공급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금융서비스가 발전할 동남아시아 시장에 AI banking 서비스 '크레딧 커넥트'를 통해 현지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수출모형을 확장하겠다는 에이젠글로벌. 솔루션 라이선스로 수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AI 금융서비스 모형을 통한 수출과 금융혁신을 이어갈 내일이 기대된다. 끝으로 에이젠글로벌은 한국의 우수한 AI 금융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기반의 '금융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선진 모형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TIME LINE

- 
- 2016. ~ 2017.**
 - 2016년 2월 주식회사 에이젠글로벌(AIZEN Global) 설립
 -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미래창조과학부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2018.**
 - 금융위원회 제1차 지정대리인(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수행) 선정
 - 가트너(Gartner) 핀테크 부문 AI 쿨 벤더(Cool Vendors in AI for Fintech 2018) 선정
 - 2019.**
 - 현대카드 및 우리카드 딥러닝 FDS 도입
 - 한국신용정보원의 CreDB (금융빅데이터개방시스템) 개인/기업/보험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금융 Credit Map 및 AI 모델링 자동화 구현
 - 2020.**
 - 싱가포르통화청 MAS Fintech Award 글로벌 부문 2위 선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부정수급 FDS 솔루션 도입
 - Intel(AI Builders Program)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 해외사업 파트너십 체결
 - 2021.**
 - CreditConnect 서비스 런칭
 - 우리은행 준법감시 및 농협생명 계리 부문 ABACUS AI 기술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바우처 사업 2년 연속 선정
 - 2022.**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국무총리상' 표창

ZOOM IN - II

인공지능 판독 보조 시스템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군 의료 환경

(주)루닛 대표 서범석



(주)루닛

☑ 일반현황

- **전담기관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내역사업명**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 기업현황

- **CEO** 서범석
-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설립 연월** 2013년 8월
- **홈페이지** <https://www.lunit.io/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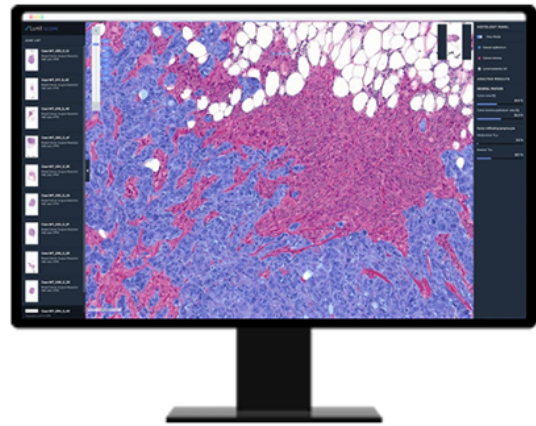
☑ 핵심성과

국내 최초·국내 유일, CB인사이트 & 다보스포럼 선정 기업
헬스케어 업계 최초 기술성평가 'AA-AA'획득
비상장 의료 AI 회사 중 최고액 투자유치

의료 환경 스마트화의 선봉 'AI 판독 보조 시스템'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폐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단체 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군부대는 조기 발견·치료·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루닛의 AI융합 의료영상 진료 및 판독 보조 시스템은 군 의료 환경 스마트화 및 진료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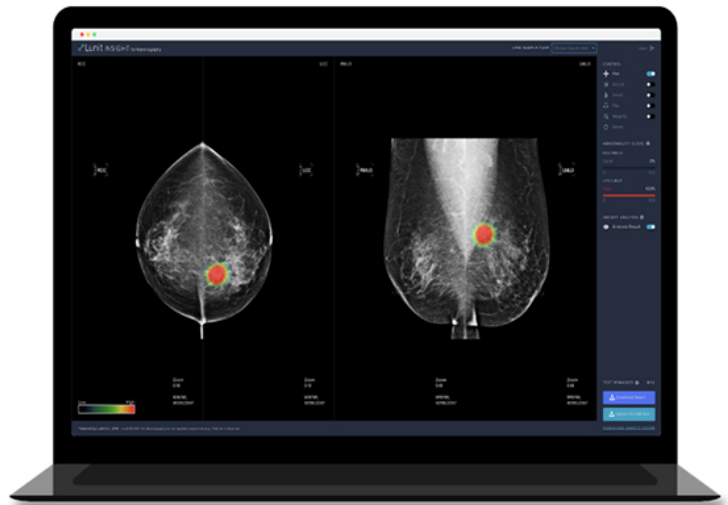
(주)루닛은 ICT 기금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AI 기반 스마트 국방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 영상판독 솔루션'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바스젠바이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 의료환경에 적합한 흉부 X-ray 와 골절 분야의 AI 판독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다.



(주)루닛은 현재 글로벌 1세대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주력 사업 분야는 인공지능 헬스케어로 의료영상 검사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암 조기 발견 및 발병 위험률 사전 예측 가능한 제품인 'Lunit INSIGHT'와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항암제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제품인 'Lunit SCOPE'를 개발·상용화했다.

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AI 제품들은 차별화된 자체 인공지능 기술력과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제품이다. (주)루닛은 이 제품들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정받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 연평부대 의무대 등 13개 군 의료기관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도입해 성능평가, 현장 의료진 만족도 조사, 사업관리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실적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모든 군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의 확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ICT 기금사업을 통해 군 의료기관과 정부기관에 AI 판독보조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던 점과 다양한 임상 환경에 적용되면서 자사 제품이 인정받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업 업무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ICT 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별로 기업 내 다양한 조직 및 인력과 협업을 진행할 기회가 생겼고, 조직 내 상호 업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점도 중요한 결실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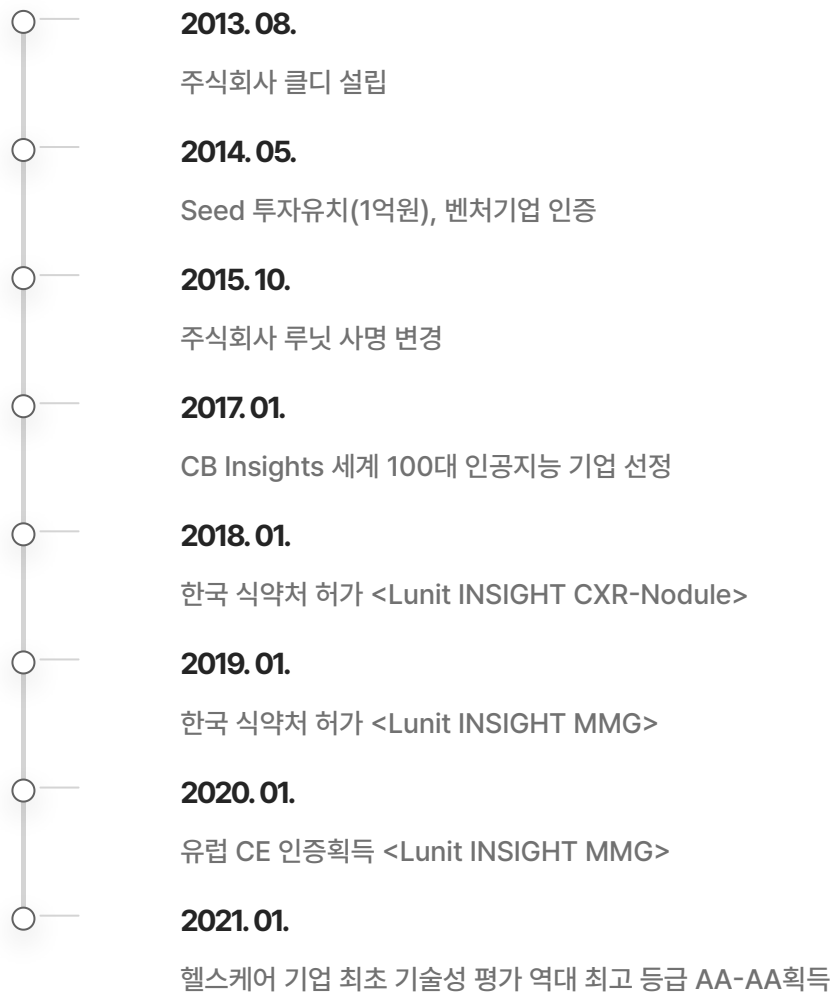
맞춤형 AI 시스템으로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

(주)루닛 관계자는 “우수성과기업 선정으로 군 의료 환경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과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ICT 기금사업의 우수한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더욱 신뢰도 높은, 실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루닛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군이 보유한 양질의 빅데이터와 만나다면 신속정확하게 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등한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정복’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현재 영상진단뿐 아니라 병리 조직 진단 및 면역항암제 치료 예측도 가능한 제품을 개발과 보급·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루닛은 “군 맞춤형 AI 시스템의 실증 및 안정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의료서비스를 해외 군 의료기관에도 확산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ICT 기금사업에 참여할 후배기업인들에게는 “ICT 기금사업에 참여하게 된 공익적 가치와 회사의 목표를 잘 연계해 사회와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TIME LINE



탄소중립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다

(주)에코아이 대표 이수복



(주)에코아이

☑ 일반현황

- **전담기관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내역사업명**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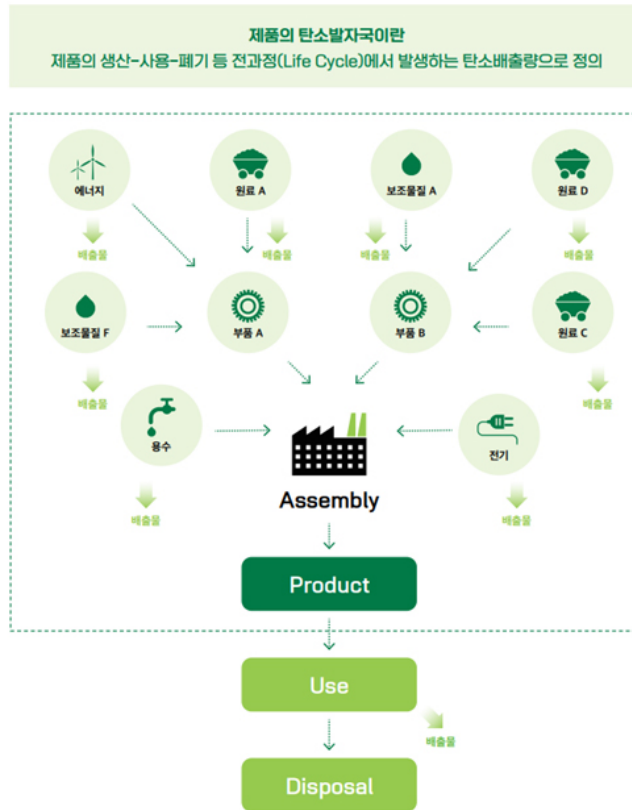
☑ 기업현황

- **CEO** 이수복
- **업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 **설립 연월** 2003년 8월
- **홈페이지** <http://ecoeye.com/>

☑ 핵심성과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높은 인지도
국내외 No.1 탄소배출권 개발 및 공급&고품질 탄소중립 데이터 서비스 제공
국내 최초 소비자 상품구매 탄소발자국 DB 개발 및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ISO14067 검증서 획득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기업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주)에코아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온실가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금액기준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하여 빅데이터로 축적하는 기업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를 높이는 흐름 속에서 (주)에코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적극적인 탄소배출권 사업 발굴 및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46%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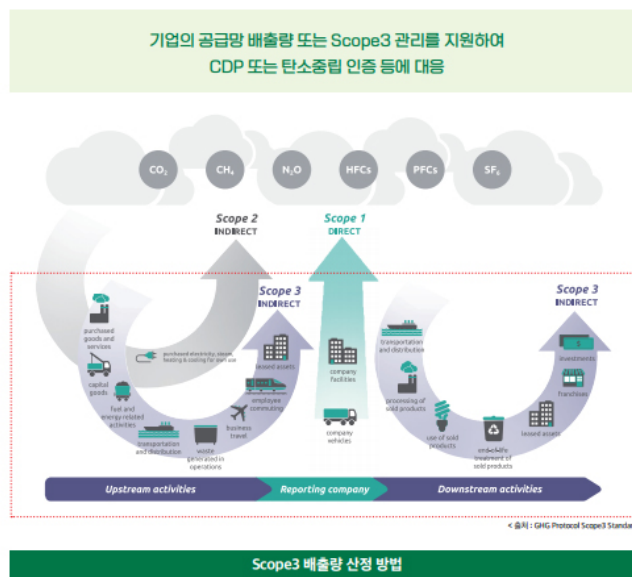
에코아이의 주된 사업분야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발굴 및 확보, 탄소배출권 중개거래, 탄소자산 관리, 탄소중립 분야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다.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권 발굴 및 확보 분야에서는 국내외 CDM 사업을 비롯해 150여개의 감축사업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탄소시장 분석 플랫폼 역시 (주)에코아이의 자랑거리다. 설립 당시부터 (주)에코아이는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분석 플랫폼 (Carbon-i)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탄소시장에 대한 흐름 및 정책이슈 등의 배출권정보를 50여 기관 및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배출권 할당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자산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산림, 건물, 교통을 분석해 맞춤형 상생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금액기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탄소발자국을 데이터베이스화에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 수준의 프로토콜에 준하는 제3자 검증을 마친 것으로 탄소발자국 국제표준규격인 ISO14067을 획득했다.

탄소중립 국정과제 채택,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맞다

“탄소중립”이슈는 전세계적인 환경 및 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금융기관 등도 직간접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이 채택되면서 (주)에코아이의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에코아이는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46%를 점유한 메이저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은 물론,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한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이 경쟁력이다. 이는 '배출권 시장정보 서비스 제공', '데이터기반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선보이며 국내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다.

ICT 기금으로 기업 성장의 전환점 맞아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의 대표적 기업 (주)에코아이는 2021년 ICT기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탄소중립 센터로 참여하게 되면 서부터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주)에코아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으나 IT전문기업이 아니다보니 데이터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ICT 기금사업에 참여하면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의 홍보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데이터사업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의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줄일 수 있게 됐다.

(주)에코아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모든 소비품목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제수준에 준하는 ISO14067 인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광주 상생카드 유료화 실적을 쌓고, 지출내역 데이터를 토대로 탄소발자국을 산정하는 등 소비자 시범 적용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탄소감축 인식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TIME LINE

- 
- 2003. 08.**
주식회사 에코아이 설립
 - 2004. 09.**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2007. 04.**
베트남 해외법인 설립
 - 2009. 06.**
영국 현지(탄소배출권 거래)법인 설립
 - 2011. 07.**
국내 최초 PCDM 사업 등록(광주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
 - 2015. 0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탄소배출권 중개거래 개시, 탄소시장 분석 플랫폼 오픈
 - 2017. 04.**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 2018. 12.**
지역에너지·온실가스 분석 시스템 구축
 - 2020. 08.**
국내 건물(주거) 표준베이스라인 UN 승인
 - 2021. 03.**
미얀마 쿽스트보 CDM 사업 국내 배출권 전환 인증

ZOOM IN - IV

ICT 기금으로 제품화 성공, 우리나라 AI 시장을 주도한다

(주)써로마인드 대표 장하영

 SURROMIND

(주)써로마인드

일반현황

- **전담기관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내역사업명** 개방형 경진대회 플랫폼 구축

기업현황

- **CEO** 장하영
- **업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설립 연월** 2011년 7월 4일
- **홈페이지** <http://www.surromind.ai/>

핵심성과

AutoML 플랫폼을 이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도입 비용 감소
MLOps 플랫폼을 이용한 인공지능 운영을 통한 운영 비용 감소
영상/언어/센서 데이터 기반의 사업분야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써로마인드. 지난 2015년 (주)써로마인드로보틱스로 시작해 2020년에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한 후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영상과 소음, 진동 데이터 처리를 위한 딥러닝 분야에서 다수의 국내외 경진대회 수상이력을 보유했으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기술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주)써로마인드는 현재 산업 맞춤형 첨단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으로 가장 먼저 AutoML과 MLOps 기술을 개발해 보편화되는 AI 기술의 효율을 높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써로마인드가 개발한 AutoML과 MLOps 솔루션은 AI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 솔루션은 불량검사 및 예지보전 작업에서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영상의 소음과 진동 데이터를 입력하면 제품의 불량 판정을 비롯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정확히 감지한다. AutoML 솔루션은 설치형 타입으로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AI 시장의 가파른 확대로 기업 성장 기대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써로마인드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높다. 글로벌 IT 산업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써로마인드의 포지션인 인공지능 개발·운영 솔루션 시장은 더욱 높은 25% 이상의 급격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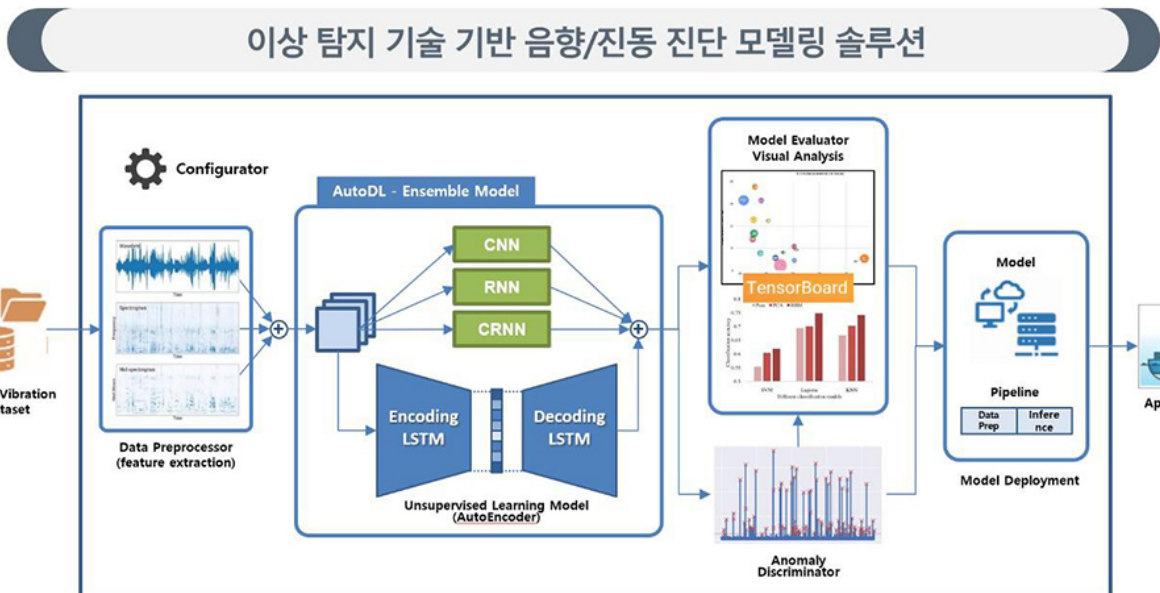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국내의 인공지능 도입 기업의 수가 3.6%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주)씨로마인드는 각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비중은 앞으로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 자신한다.

국내 시장에서 (주)씨로마인드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우수한 R&D 역량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씨로마인드는 지금껏 NeurIPS를 비롯해 IJCAI, ICCV, ECCV 등 세계 최고 권위있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총 9편의 논문을 발표와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험 또한 갖추고 있다. 이론적 성과만이 아닌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통해 KT클라우드에 솔루션을 납품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력을 쌓아가고 있다.

ICT 기금 참여 이후 매출 127% 증가

(주)씨로마인드는 '2021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참가를 계기로 ICT 기금사업에 참여했으며 당당히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주)씨로마인드는 자동차업계가 관심이 높은 소음과 진동 데이터의 수집과 연구에 주력하던 중에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시제품 개발이 지연되던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씨로마인드는 본격적인 제품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 ICT 기금사업을 통해 (주)씨로마인드가 거둔 성과는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첨단 기술을 제품화했다는 것이다.



(주)씨로마인드는 사업기간 중 이상탐지 기술을 적용한 소음 및 진동 기반 기계의 진단 모델링 솔루션을 개발해 목표 대비 127%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AI국제학회에 기술과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내 특허 1건 및 SW등록 2건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대표상을 수상하고,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출품하는 등 활기찬 기업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적재적소의 ICT 수혜로 꾸준한 성장 이어져

이렇듯 (주)써로마인드가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적기에 ICT기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품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상품화나 판로 확보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주)써로마인드는 기술 개발을 완료한 이후 ICT 기금사업을 통해 빠른 제품화가 가능했다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요인이라 말한다.

(주)써로마인드는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될수록 AI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기업 조직의 디지털 전환 및 민첩성, 회복탄력성, 효율화 등을 위한 양질의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우리나라 AI산업의 대중화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써로마인드의 목표다.

TIME LINE

